“작은 관심이 고독사 위험가구 일상을 바꿉니다”

오늘은 나눔 내일의 희망

〈5〉 농성1동 이웃돌봄단

단원 14명 독거노인 정기방문…말벗·생활지원 활동

현장경험·의견 대변…복지행정 반영 가교역할 ‘톡톡’

김선덕 농성1동 이웃돌봄단장은 “새롭게 참여하는 단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거창한 도움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하고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농성1동 이웃돌봄단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성1동 이웃돌봄단은 현재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올해 리더를 맡은 단원도 있다. 단원들은 주로 70대 전후 1인 가구 어르신 등 고독사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상자의 위험도에 따라 전화와 방문 횟수를 조정하며, 2인 1조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원 1명이 평균 10~12명의 어르신을 맡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눈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안부 확인에 그치지 않는다.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에게 말벗이 돼주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작은 도움도 건넨다.

지난 6월에는 안부 확인을 위해 방문한 한 어르신이 구멍 난 티셔츠를 몇 시간째 꿰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대신 바느질을 해드리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며 정서적 외로움을 겪는 어르신과 함께 식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외로움이 컸던 어르신은 평소 안부를 묻고 찾아와준 단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곰탕을 대접했다.

올해 3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 가정을 방문했다. 서예를 취미로 하는 어르신은 직접 쓴 ‘행복’이라는 글귀를 단원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단원들은 이 같은 경험을 통해 봉사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는 활동 영역도 넓혔다. 농성1동 마을 돌봄사업의 하나로 지난 6~7월 무각사 템플스테이 명상 프로그램에 어르신 10여명과 함께 참여했다. 평소 안부 확인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힐링의 시간을 선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농성1동 이웃돌봄단원들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찾아 건강상태 확인과 말벗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농성1동 이웃돌봄단

단원들은 이웃돌봄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꼽았다.

김선덕 농성1동 이웃돌봄단장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나의 작은 관심만으로도 누군가의 외로운 일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러 간다고 생각했지만, 봉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채워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손을 꼭 잡고 ‘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 느끼는 보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농성1동 이웃돌봄단은 자영업이나 통장 활동 등 각자의 생업과 지역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이웃을 살피는 일을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자연스럽게 발견하면서 지역 복지와 봉사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웃돌봄단은 복지서비스 전달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가 서구 복지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

단원들은 서구청으로부터 쌀과 간편식, 식료품, 냉방용품 등을 지원받아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한편,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파악한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행정에 전달하고 있다.

리더 소모임을 통해 현장에서 느낀 문제와 사례를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이나 활동 방식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다. 활동 기록지 작성 과정에서 확인된 불편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 역시 행정에 전달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복지 대상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주민들이 현장 상황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행정이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생활 속 복지 수요를 발굴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단원들의 경험과 의견이 행정에 전달되고 다시 현장 활동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농성1동 이웃돌봄단이 꼽는 가장 큰 자랑은 ‘가족 같은 끈끈함’이다. 단원들은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를 진짜 가족처럼 대하며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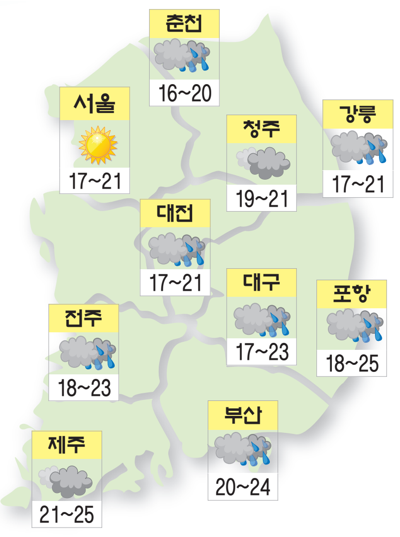
김 단장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 봉사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스스로 지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새롭게 참여하는 단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건네는 안부 인사가 삶의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농성1동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36	달뜸	09:05
해짐	18:01	달짐	19:08



광주	🌧	19~23
목포	🌧	20~23
여수	🌧	20~23
순천	🌧	19~24
구례	🌧	18~23
해남	🌧	20~24
완도	🌧	21~25
흑산도	☀	19~23
고흥	🌧	19~25
진도	🌧	19~23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광주	☺
전남	☺

목포	밀물 (고)	03:23 / 16:01
	썰물 (저)	08:35 / 21:04
여수	밀물 (고)	10:26 / 22:21
	썰물 (저)	03:49 / 16:24

야구선수 조형물 부순 20대

만년필

○…술에 취해 프로야구 선수 기념 조형물을 부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

광주 북부경찰은 12일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4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동 패션의 거리에 설치된 김성한 전 해태타이거즈 선수 조형물을 부수고 달아난 혐의.

조사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인근을 지나가던 중 조형물을 발견했고, 만취 상태에서 조형물을 흔들다가 넘어뜨려 파손한 것으로 드러나.

A씨는 범행 하루 뒤인 11일 오후 3시30분께 북구 당직실로 연락해 자신이 조형물을 훼손했다며 자진신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경찰에 “취기가 올라 우발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현재 조형물은 무릎 윗부분이 통째로 동강 난 상태로,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임시로 수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중수청 이첩 사건 ‘0건’

광주·전남경찰, 11건 통보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경찰로부터 11건의 사건을 통보받고도 실제 이첩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모두 459건이다. 이 가운데 광주경찰청은 9건, 전남경찰청은 2건을 통보했다.

통보된 사건들을 관할별로 구분한 결과 광주중수청 관할사건은 25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광주를 포함해 중수청이 경찰청에 이첩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이첩받은 사건은 0건으로 확인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광주 사립대 6곳 ‘특성화 선도대학’ 선정

호남대·동신대·광주대·초당대·순천제일대·전남과학대

2030학년도까지 정원 3%이상 감축…학과재구조화 추진

전남광주지역 사립대 6곳이 교육부의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생존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 대학은 향후 5년간 전국 33개 선정 대학에 배정된 총 6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특성화 분야 육성과 학과 재편에 나선다.

교육부는 12일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일반대 16곳과 전문대 17곳 등 사립대 33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에서는 일반대학인 호남대·동신대·광주대·초당대와 전문대학인 순천제일대·전남과학대가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일반대는 모두 비수도권 대학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사립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업의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신설된 이번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대학별 강점과 국가·지역 산업 수요를 연계한 특성화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대학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재정 지원을 받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과 규제 특례도 적용받는다.

대학별 지원금은 평가 결과와 사업 성과 등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교육부는 올해 일반대학에 850억원, 전문대학에 340억원을 배정했으며, 대학당 평균 지원 규모는 일반대 50억원, 전문대 20억원 수준이다. 선정 대학들은 특성화 계획에 따라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감축하고,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한정된 교육 자원을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해 교육의 질과 취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원 감축과 학과 개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연차별·중간 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최대 5년간 이행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지역 대학가에서는 이번 사업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지역 사립대에 새로운 경쟁력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특성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특별시 광산구, 민선9기 정책기획단 공식 출범

전문가 18명·5개 분과 구성·운영…임기 2년

사회정책 분과 신설…실무자 정책교류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구정 정책 방향과 미래전략을 논의할 ‘민선9기 정책기획단’이 공식 출범했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청사 2층 상황실에서 정책기획단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정책기획단은 구정 분야별 전문가와 상시 소통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자문기구다. 기존 위원 9명과 신규 위원 9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분과는 △사회정책 △도시환경 △지역경제 △문화관광 △행정혁신 등 5개로 운영한다.

민선9기에는 사회정책 분과를 신설하고 지역경제·행정혁신 분야 전문가를 보강했다. 전문가와 실무자의 정책교류도 확대해 현안에 대한 자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 마련한 사회정책 분과는 고령화와 복지·돌봄 수요 증가, 인권 등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다. 인구정책과 공동체, 돌봄, 인권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관련 정책을 논의한다.

지역경제 분과에는 산업클러스터, 노동정책, 인공지능(AI)·산업정책 전문가를 새로 위촉했다. 행정혁신 분과에도 행정학 전문가를 추가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구정 주요 현안을 논의할 때는 관련 부서장과 실무 직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 현장의 과제를 공유하고, 전문가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9기 구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기획단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광산구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11월 중 정책기획단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선9기 정책기획단 (재)위촉 및 원탁토의
2026. 10. 12.(월) 15:00 2층상황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는 12일 청사 2층 상황실에서 ‘민선9기 정책기획단’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정책은 전문가·경험자·시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집단지성이 모일 때 더 혁신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며 “기획부터 집행, 평가, 환류까지 정책 추진 전 과정을 위원들과 함께하며 광산의 연속성 있는 발전과 도약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